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25호

‘월야(月夜)’

이야기

2000년 5월 8일 스승님의 강연에 참석한 후 나는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 그 때 방편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즉각 깨닫는 열쇠’ 1권을 사서 읽고 난 후, 눈을 감으면 언제나 입체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광경들은 놀랍도록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입체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기적 소리와 해조음을 듣던 중 높은 모자를 쓰고 오른손을 높이 든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온몸에서 은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 쪽으로 오자 나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스승님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어떤 자리(나중에 알고 보니 지혜안 자리였다)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무서워져 그만두려하자 내 영혼은 다시 돌아왔다.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2000년 11월에 방편법을 배우게 된 나는 뉴스잡지 표지에 실린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 비전으로 보았던 모습이 바로 화신 스승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승님과 인연이 있기에, 입문하기 전 방편법을 할 때에도 내면의 빛과 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

방편법을 배운 지 몇 달이 지나 등산을 했을 때, 기분이 상쾌하고

예비입문자 고영도 사형/
한국 서울 (원문 한국어)

힘이 넘치는 듯 했다. 내가 산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명상하기 시작하자 마치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듯이 여러 광경들이 섬광처럼 지나갔고, 그 중 작은 빛이 내게 다가왔다. 그 빛은 점점 커지고 강해지더니 수정으로 만든 집 모습이 되었다.

내가 방편법 단체명상 시간에서 본 비디오에서 스승님은 수정으로 만든 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저 높이 어떤 천국에 가면 수정으로 만든 집들이 있습니다. 집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혀 있는 느낌이 전혀 없지요. 그곳의 존재들은 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건 벽들이 부드럽고 편안하며 투명해서 앞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유리재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보다 문명화된 것으로 이런 집을 설계한 사람들은 내면의 통찰력과 지혜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언젠가 그런 집에 살았으며, 그걸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의 건물들은 SF영화나 만화에 묘사된 미래 건물이나 지하철역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내가 이런 건물들을 좋아하고 그 옆에 있으면 아주 편안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마 내면의 체험 때문인 듯 싶다.



수정으로 만든 집의 오른쪽에는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언젠가 나는 서울 센터에 걸린 스승님의 유화 그림인 ‘달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 체험과 완전히 일치했다. 깨닫게 되면 강렬한 빛을 보게 된다고들 하는데,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체험이 생겼을 때, 나는 법회로 충만했지만 곧 비전이 사라졌다. 아마 내 수행이 부족했던 탓일 것이다.

매일 명상 수행을 통해 이완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체험을 하게 된다. 비록 지속적인 삼매에 들긴 어려웠지만, 이 짧은 체험을 통해 나는 관음법문이야말로 내게 최고의 수행법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모든 일을 이 새로운 수행을 기준 삼아 수행의 각도에서 일을 해내면서 지혜란 결코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앞 표지 안/무상예술

‘월야’ 이야기

2 다채로운 이벤트

루마니아/미국/푸에르토리코/호주/포모사

5/27 수행일화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여 겸손해지자 /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6 수행과 생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선(禪)!

7 사제지간의 편지

무소부재한 인명 구조원

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승님의 사랑의 원천 — 게 이야기 / 홍콩의 벌레 이야기

14 당신은 모르실 거야

동일체의 사랑

16 골라 뽑은 수행문답

21일이면 어떤 습관도 고칠 수 있다 /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

18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DVD/ 새로 나온 책 - 잃어버린 기억

19 스승님의 농담

어떻게 이런 논리가?/ 신의 뜻?!

20/48 센터 이벤트

스승님의 보호로 재난을 피하다/ 놀라운 소방수/ 뉴저지의 낙원

22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하리! 하리! 방랑자 성인!

24 전세계 채식식당

25 스승님 말씀

자신의 게으름을 극복하라

25 신기한 감응

천국같은 평화 / 구원의 기쁨

27 감로범어

28/38 매체보도

‘사회발전’ 93호/ 2001년 7월 22일자 민중일보/
2001년 7월 30일자 민중일보

36 사랑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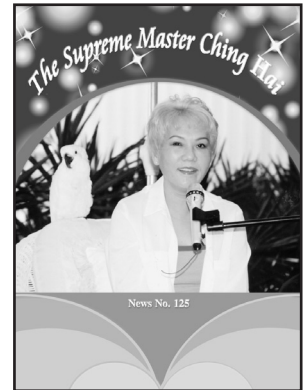
포모사를 강타한 태풍 도라지 재해 복구활동

41 관음웹사이트

42 전세계 연락처

47 시

칭하이 스승님 / 나의 소원은



모든 작은 미물도 사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중생을 살생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5호

출판일자 : 2002. 3. 2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소식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부카레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의 동수들은 아름답고 안정적인 센터가 있는 것을 굉장한 행운으로 여긴다. 그러나 주변 다른 나라에는 아직 센터가 없었는데 동수들은 늘 이점을 아쉬워 하던 중 이번에 관음사자와 함께 이웃나라인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비디오를 루마니아어로 번역하고, 루마니아어로 된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한편 이상적인 강연회 장소를 물색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모든 준비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01년 7월 14일 열린 강연회는 참석자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절반 가량이 남아 방편법을 배우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들은 입문을 위한 계속적인 연계를 위해 연락처를 남겼다. 우리는 이 강연회를 통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시험에도 준비되어 있다!

미국 미시간 소식

디트로이트에 영혼의 이정표를 세우다

【디트로이트】 2001년 7월 7일, 동수들은 ‘용기 있는 삶, 사랑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디트로이트 최초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디트로이트는 인구 5백만의 미국에서 일곱번째로 큰 도시다. 하지만 범죄지수는 전국의 2배가 넘고 1가구 소

득은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많은 가구가 결손 가정으로 아이들의 고등교육 진학률 역시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

6월 초 플로리다 센터에서 스승님과 재회했을 때, 스승님은 농담 가운데 세 번이나 디트로이트를 언급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이 오래되고 도움이 절실한 도시에 비디오 강연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강연회 전 많은 동수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70대 초반인 한 사형은 가족과 함께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와서 우리를 돕기도 했다. 그 사형의 딸은 대수술을 한 후 막 회복되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작업에 열의를 갖고 동참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작업을 했다. 6월에 플로리다 센터에서 입문해서 관음가족이 된 지 2주도 채 안 된 러시아 부부도 디트로이트에서 전단지를 함께 배포했다. 그들은 또한 자택 근처의 음식점마다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해 우리는 스승님과 관음수행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다.

비디오 강연회 때 모두들 스승님의 유머와 지혜에 마음을 빼앗겼고 신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관한 신실한 질문들을 했다. 방편법 전수가 끝나고 나서 한 동수가 처음으로 명상한 느낌이 어떠냐고 묻자 대부분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관음법문에 대한 많은 질문과 전화가 쇄도했다.

디트로이트의 시민들은 아직도 1960년대 후반 유혈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골목에서 쾅만 아니라 주요 고속도로 근처에서도 폐허와 부서진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 그러나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스승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디트로이트 시민들에게 영혼의 불을 밝혀 주어 새 천년의 첫 해인 지금부터는 이 도시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믿는다.

푸에르토리코 소식



사랑의 마음

[카무이] 푸에르토리코의 동수들은 스승님을 몹시 뵈고 싶어했지만 6월에 올랜도에 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스승님께서 푸에르토리코의 동수들에게 축복사탕을 전해 주라고 하셨다며 오하이오 센터의 한 사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그 다음주 일요일에 산 주앙 센터와 단체명상이 잡혀 있어서 우리는 그를 이 행사에 초대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비행기를 타고 푸에르토리코에 오게 되었다.

단체명상을 끝내고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음식을 먹고 사랑의 깜짝 선물을 받았다. 비록 스승님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가피물을 통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스승님께 정말 감사했다.

호주 소식

‘육체, 마음, 영혼’의 축제

[멜버른] ‘육체, 마음, 영혼 2000’ 축제가 얼마 전 멜버른 전시관에서 열렸다. 이 연례 행사에는 수만 명이 참가해 각양각색의 전시부스를 구경하고 또한 다양한 신체 및 영적 행사에 참석했다.

멜버른 동수들 역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가해 부스를 마련했다. 우리는 3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 교대로 상담

처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한편, 관음법문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길 희망하며 다음 주로 예정된 비디오 강연회 소식이 담긴 수천 장의 관음법문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강연회 당일 동수들의 체험 발표에 이어 스승님의 비디오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영되었다. 우리는 행사 후 참가자들이 모두 방편법을 배우길 희망했는데, 대부분 기쁘게 이를 받아들였으며 일부는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다과를 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포모사 소식

뜨거운 여름도 식힌 청소년 체험캠프

[타이베이] 어린이 동수 및 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2000 돌고래 섬 여름캠프’의 성공에 힘입어 타이베이 센터는 포모사 중고생 동수들을 대상으로 3일간 ‘청소년 체험 캠프’를 열었다. 이 행사는 경치 좋은 우와이 외곽의 푸산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첫날엔 대지 5종목 대회가 열렸고, 저녁엔 락 음악과 춤으로 축하 파티가 열렸다. 또 관음사자와 어린 동수들간의 특별 세미나도 열렸는데, 관음사자는 많은 논제들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했다. 채식으로 급우들 사이에 불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그 일치된 결론은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고 채식이 얼마나 고귀한 선택인지 안다면, 주위 친구들의 생각도 점차적으로 바뀌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는 것이었다. 명상과 학업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

한 동수는 명상을 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스승님이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수는 명상하고 나면 공부도 잘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서 참석자들 모두 활발하고 열성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둘째 날의 ‘급류 타기’는 캠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흐르는 물줄기의 자연 음류를 배경으로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일렁이는 물결을 헤쳐 나갔다. 진행원들이 물줄기를 따라 설치해 둔 밧줄을 잡고 모두들 이 흥미진진한 모험을 맘껏 즐겼으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비큐 파티로 자축했다.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일잔치를 열었다. 타오르는 불빛에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비춰지고 불꽃과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참가자들은 캠프파이어도 하고 토속 춤도 추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정경을 연출했다.

셋째 날에 열린 수구 게임은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을 행사였다. 진행팀은 미리 수백 개의 물 풍선을 준비해 놓았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 모두 열광적으로 수구 싸움에 뛰어들었다. 주방팀조차 호스를 들고 나와 싸움에 참가했으며 쫓고 쫓기면서 옷을 적시고 떠나갈 듯한 웃음을 터트리면서 게임을 즐겼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주변을 청소하여 원래보다 더욱 깨끗해졌다. 3일간의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행복한 추억들을 간직한 채 아쉬움 속에 집으로 돌아갔다.



신나는 해변 여름캠프

[타이쥬]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포모사 각지 동수들은 포모사 중부 파안 해수욕장에 모여 ‘바다의 마음-즐거운 여름캠프’를 열었다.

어린이 레크레이션 캠프, 학습성장 캠프 및 즐거운 한 가족캠프 등이 포함된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연극 공연과 춤, 해변에서의 아침 기도, 캠프파이어 등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이 외 토론회와 수행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행사참석자 전원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멋지게 계획되었고 진행팀 역시 이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 여름캠프는 야외에서 열려 외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동수들의 즐거운 모습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어떤 단체 사람들인지 몹시 궁금해했다. 몇몇은 우리와 함께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셋째 날, 1천여 명이 참여한 파안 해변 청소에 우리도 참가해 1시간 반만에 말끔히 치웠다. 이날 오전에는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과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상영하기도 해 현지 관광객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

‘좋은 엄마 채식식당’ 오픈

[킨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좋은 엄마 채식식



당' 이 드디어 2001년 6월 2일 우레와 같은 환호 속에 문을 열었다. 대중들의 힘을 모아 탄생한 이 채식식당은 건축 과정 중 많은 포모사 동수들이 찾아와 열렬히 지원해 주어 킨먼 동수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킨먼에서는 완전채식 식당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좋은 엄마 채식식당'의 개점은 현지 동수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개점 후 1달이 조금 넘은 현재 벌써 군인과 출가인, 직장인 등 많은 단골들이 생겼으며 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조화로운 분위기

기와 맛있는 음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수들은 채식권장 뿐 아니라 스승님의 가르침도 전해지길 희망하며 식당 한편에 정서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많은 동수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킨먼에 완전 채식식당이 생겼다

수행일화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여 겸손해지자

중국 허베이성 동수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나는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다. 내 오토바이는 꽤 오래 전부터 힘이 딸리는 상태였다. 몇 번 대중 점검해본 것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자전거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야 나는 오토바이의 문제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배기관을 뜯어 자세히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 배기관은 카본 침전물로 거의 막혀 배기 가스가 통과하는 공간이 콩알만큼 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토바이를 탈 때 파워가 약했던 것도 당연지사였다! 순간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니 수년 전에 카본 찌꺼기를 청소한 것 말고는 청소한 기억이 없었음에도 전혀 그 심각성을 예상치 못했다.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규칙적으로 정비 점검을 했었는데 차츰 게을리되면서부터는 오토바이가 굴러가지만 하면 별 신경 쓰지 않았고 점검을 해도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토바이가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흡사하다. 우리가 처음 입문했

을 때의 신실함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새 나태해지기 시작한다. 또 친구의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신의 가피력을 받아 수행의 등급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결점을 바로 보고 깊이 성찰할 용기가 없다면 자신의 막힌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을 성찰할 때에야 비로소 풀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세심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경우, 오토바이의 심각한 상태는 나 자신에게 아직 내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내면이 완벽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일로 인해 나는 겸손함의 부족, 대강대강 일을 처리하는 습관, 늘 쉽고 편한 길만 찾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만 주의주느라 바쁜 태도 등 나의 결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다른 동수들에게도 수행해 나가면서 언제나 깨어 있는 상태로 친구의 모든 면을 정확할 수 있는 참고가 되길 바란다.

생활하는 모든 것이 선(禪)!

탕주임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나는 작년 평후의 여름캠프를 놓친 것을 계속 아쉬워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필코 참가하겠다는 결심 아래 이번 어린이 캠프에 아들(입문자)과 함께 참가 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참가하려고 했지만, 캠프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 모든 행사가 매우 뜻 깊고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맘껏 웃으며 드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내달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번 여름 캠프는 바로 이런 내 소망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었다. 첫날 아침, 작업팀의 통솔로 운동을 따라하면서 온몸의 세포들이 즉시 생기를 찾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활기찬 운동은 정말 오래간만이였다. 오후에는 한 여성 동수의 지도로 한층 격렬한 에어로빅댄스가 시작되었다. 내 몸에서는 오전보다 더 많은 땀이 쏟아져 내렸다. 온몸 근육들이 갑작스런 훈련에 반발하며 항의했지만, 나는 다른 동수들과 함께 에어로빅댄스 시간을 마음껏 즐겼다. 모든 동수들이 각자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던져 버리고 몸과 팔다리를 씩씩하게 움직이며 신이 안배하신 행복한 휴일을 한껏 즐기는 광경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캠프장이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물놀이나 해변 게임이 많이 진행되었다. 놀이를 하는 동안 동수들의 순수한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부분 동수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심을 잃지 않고 있어서 정신 없이 게임이 몰두했다. 행사가 끝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때의 모습들을 떠올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곤 한다. 이 일 외에도 캠프 기간 중 나는 수영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이전에 한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평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한 덕분이다.

동적인 활동들 외에도 영적 성장과 관계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수행 후 소감 발표, 해변 모래찜질로 심신 이완시키기, 수행가곡 부르기, 영적인 영화 감상 등을 하면서 느낀 강렬한 감정들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붓물 터진 듯이 종종 눈물을 쏟곤 했다. 이번 여름 캠프는 내게 웃음과 눈물, 두 가지를 다 주었다!

“행주좌와가 모두 선이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행이 높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봉사하는 일에 자주 참여하면서, 특히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나는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혜안에 계속 주의력을 집중하면 스승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수행은 가부좌하고 명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 활동과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대체 어느 과정에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면에 잠재된 능력이 얼마나 되는 지도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나는 다른 동수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작업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에게 이처럼 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소부재한 인명 구조원

(원문 영어)

2001년 5월 29일 (원문 영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어제 일어난 제 인생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제는 햇볕도 따사롭고 날씨도 화창해서 푸른 하늘에는 연꽃 같은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영하기 딱 좋은 날이었지요. 저는 작년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줬지만 올해 초에는 수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수영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이 문을 닫을 때가 되어 풀장에서 나온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물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풀장의 가장 깊은 곳(깊이 2미터)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해리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수영해 가서 한 팔로 아이를 잡고 다른 한 팔로 해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해리가 제 등을 누르면서 물 속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내 등을 잡지 마!” 하고 말하려다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 속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을 먹고 해리는 제 등에 돌덩이처럼 꼭꼭도 하지 않고 매달려 있어 둘 다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저는 스승님을 떠올리며 마음 속으로 “나무 칭하이 무상사, 살려 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 때 두 번 외칠 것도 없이 바로 불가사의한 힘이 저와 제 등에 매달린 해리를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풀의 가장자리를 잡고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저의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평친 올림

2001년 5월 29일

사랑하는 스승님께

어제 저는 엄마와 제 동생 해리와 함께 수영하러 갔습니다.

저는 다이빙을 하고 있어서 해리와 엄마가 없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리가 엄마 등에 업혀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엄마와 해리의 생명을 구하신 것은 스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엄마와 해리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전 오랫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아니타 다스웰 올림

2001년 5월 29일

사랑하는 스승님

저와 엄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엄마(평친), 누나(아니타)와 저(해리)는 보베이 트레이시 수영장에 수영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수영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가라앉기 시작하자 너무나 놀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엄마만 알아들었을 뿐 구조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전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는데, 엄마가 헤엄쳐서 오셨습니다. 제가 엄마의 등을 잡고 올라타려고 하자 우리 둘 다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엄마도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누나는 우리가 화장실에 간 걸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움 속에서도 스승님의 이름을 암송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셨고, 그러자 우리는 갑자기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스승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해주신 거예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리 올림



스승님의 사랑의 원천



게 이야기

칭하이 무상사

1991. 1. 18. 파나마 (원문 영어)

코스타리카에 있을 때 겪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내적인 느낌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나 역시 똑같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내면으로 내게 얘기하는 모든 것을 나는 압니다. 나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스승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때로 강하게 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슬픔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나까지 여러분을 비참하고 늘 자신의 감정과 우울함에 빠져 살도록 방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요.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새나 벌레와도 공감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과 공감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늘 눈물을 글썽이며 다니거나 여러분과 함께 울면서 여러분의 기분을 더 악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살아나가야 하니까요.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2주 동안 동수들과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국제선 후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제자 30명 정도가 있었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변에 있어도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야단치고 웃고 요리하는 등 벌어졌을 온갖 일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는 파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들어 우리 발에 닿을 정도였지요. 나는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나는 비, 그 중에서도 호우를 특히 좋아해서 몸이 젖는 것쯤은 신경도 안 쓸 텐데 우산을 쓴 것은 갈아입을 옷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옷만 갈아입고 싶지도 않았구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 우산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옷만 충분히 있었으면 우산 없이 걸었을 겁니다.

그때 큰 파도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매우 큰 게 한 마리를 봤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와 그 게를 바다로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게는 해변의 모래를 꼭 움켜잡고는 떠내려가지 않으려 간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근처에 있는 한 사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리와서 이 게를 좀 도와주세요. 이 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 사저가 오긴 왔는데, 그녀는 몹시 서툴러서 게를 여러 번이나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게를 놀라게 만들었지요. 그 사저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모르니 내가 뭐라 지시할 수도 없었지요. 그 사저는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하고 계속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그 사저가 게와 씨름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로 ‘게’라는 말 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사저에게 계속 “그래요! 맞아요! 그 게”란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사저가 게를 어떻게 들어 올렸는지 압니까? 땅을 팔 때 쓰는 삽으로 들어 올렸어요. 삽으로 들어 올리다 떨어뜨리고, 다시 들어 올리다 떨어뜨렸지요. 나는 “아니, 아니예요. 그렇게 해선 안 돼요!” 라고 했지만, 그 사저는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만 물었습니다. 나는 “그러다 다치겠어요. 자꾸 떨어뜨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저는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요. 나는 “오, 맙소사!” 만 연발했습니다. 한참 동안 게와 놀다 진력이 난 사저는 게의 한쪽 다리를 잡고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물릴까봐 가장 작은 다리 하나를 들었지요. 그 둘은 마치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게의 작은 다리를 잡고 좋아했지만, 그 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일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맙소사! 그녀가 게 다리를 부러뜨리길라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를 바다로 던져버릴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게가 무사하기를 신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



리 뽀족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게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파도가 못 미치는 해변 위로 뛰어가는 동안 나는 계속 고통스러워했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 우습지만, 그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지 아세요? 그 뒤에 게에게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 사저는 결국 해변에 내려놓았습니다. 파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었고 내 마음에도 썩 들진 않았지만, 좀더 좋고 안전해서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나는 게가 괜찮은지, 무슨 일은 없는지 보기 위해 우산으로 건드려 봤습니다. 그러자 게는 나를 쳐다보며 집게발을 들어 위협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겁먹어서 방어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더니 바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돼, 안 돼, 거기 가지 마. 거긴 위험해” 하고 말했지만 게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자 내 속도가 빨라질수록 게도 더 빨리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계속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노려봤지요.

나는 마음 속으로 ‘왜 그렇게 겁내니?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널 구해주려는 것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사저가 다리를 들어 잔뜩 겁을 준 터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고 나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 우산으로 게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연이어 파도가 다시 덮쳐서 내 우산까지 휩쓸고 가버렸어요. 나도 하마터면 같이 휩쓸릴 뻔했지요. 그리고는 게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게가 물에서 산다는 건 알지만 파도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게가 오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고 또 게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미쳤거나 왜 그깟 게 한 마리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의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 뿐만 아니라 벌레 한 마리, 개미, 혹은 파리 한 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당시 그 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매우 방어적이었어요. 나를 무서워한 건 아니었지만 경계했지요. 꼭 나를 아는 것처럼 겁내진 않았는데도 모험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간 것이

지요. 나는 그때 정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해변 여기저기를 다니며 게를 찾아봤지만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홍콩의 벌레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1994. 4. 1-4 홍콩 국제선삼

(원문 중국어)

우리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덜 심 각해지며,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됐어, 괜찮아” 하면서 점점 더 이완되지요. 사람들이 좋고 나쁜 행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신경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로부터 오염이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점점 더 이완되며, 이따금 가족이나 친구들을 잘 대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해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훌가분해집니다. 일세해탈(一世解脫)이라 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물질세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묶이고 자기 스스로를 묶게 되므로 하루종일 답답한 기분인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살다보면 이런 답답한 분위기에서 결코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해탈하여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걱정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되지요. 전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참을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대 나는 그렇게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좀 전에 벌레 한 마리를 밟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호법에게 “차라리 그 벌레가 죽었다면 그래도 낫겠어요. 그 벌레가 다쳤는데도 말을 못 하니 어디를 다친 지 알 수가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벌레를 젖은 풀 위에 놓고 물을 좀 뿌려 주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좀 낫길 바랬지요. 낫겠지만, 벌레는 다쳤을 때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어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움직이긴 했지만 분명히 다쳤을 텐데 말이에요. 발이나 발톱이 부러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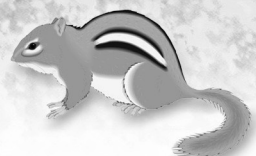
수도 있고, 온종일 매니큐어로 치장했는데 내가 발톱을 부러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니큐어도 칠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이제 막 모임에 가려고 나섰다가 나 때문에 어딘가 부러졌을 수도 있지요. “탁-”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계속 벌레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해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아직 해탈하지 못하고 짐작이 남은 것 같군요! (대중 웃음) 그렇지요? 나는 아직 이런 상황에서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상처를 받으면 나도 상처를 느끼지요. 특히 동물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면 나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요. 우리가 다치면 대부분 병원으로 옮겨져 의사에게 다친 부위를 말해주고 바로 치료를 받으면 바로 낫습니다. 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고통이 경감되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스승님 한숨)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일종의 대가인 셈입니다.

신이 사슴과 곰, 토끼,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단조로웠겠습니까. 신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많은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커서 동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도 영혼과 생명, 감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이 있어야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죽을 때 동물들은 이 생명과 신체를 가진 대가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이 생명과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에게 키스하거나 만져도 아무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차가운 음료수나 뜨거운 차를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겠지요. 우리는 감각을 통해 이 세상을 즐기고 꽃의 향기와 과일의 단 맛, 차와 음식의 풍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느낌과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동물도 같습니다.

우리는 생생한 그런 느낌을 위해 대가를 치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로봇은 인간과 흡사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봇에는 감정이나 감각이 없어서 ‘맛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양의 따뜻함이나 산들바람의 시원함, 고통스런 느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없다면 느낌도 없으며 느낌이 있으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에게 왜 이 세상의 고통을 창조하셨는지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자유와 감각을 갖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야만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물이 기계처럼 느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계와 같다면 아무런 재미가 없을 테지만,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요. 신이 우리 감각을 마비시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길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할수록 우리는 운명을 알게 되고 또한 이곳에서의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느낌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으므로 고통이 올 때 그냥 벗어나거나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는 돈과 권력, 선택의 자유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빠져 버렸고, 그것을 탐닉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재능과 돈,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끝까지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이 가난과 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묻습니다. 사실 그건 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내려왔으니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성인, 훌륭한 수행자는 이 세상의 좋고 나쁜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찰나만 볼 뿐 과거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고 싫어할 뿐이지요. 그들은 내적인 평온이나 균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욱 고통스럽고 싸우게 되며, 더 많이 원할수록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어 살인이나 강도, 싸움 등을 하게 됩니다.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 고통은 더욱 커지기만 할 뿐 거기서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는 방식은 모두 그렇습니다.





동일체의 사랑

글/ 미국 플로리다 센터 장주
(원문 영어)



4월 중순
시원한 봄비처럼 스승님이 플로리다 센터에 나타나셨다. 당시 플로리다는 백 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물 사용이 금지되었고, 더불어 불의 사용 역시 금지되었다. 센터의 과실수는 모두 까맣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모두들 언제 비가 올지 고대하고 있었다.

그때 스승님이 오셨다. 스승님은 도착하자마자 장주들을 처소로 부르셨다. 온몸을 비닐 옷으로 감싸신 스승님은 커다란 흰 개를 안고 계셨는데, 그 개는 동물보호소에서 만났을 때부터 병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수년 동안 스승님의 청결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스승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청결함 그 자체였으며 스승님 방에서 먼지 한 점이라도 발견된다면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스승님께서 병들어 침 흘리는 개를 얼굴 가까이까지 들어올려 안고 계셨던 것이다. 그 후에도 스승님은 몇 주 동안 새를 비롯해 온갖 버려진 동물들을 받아 키우셨다. (스승님은 새 날개의 상처가 치유되는 대로 날려보내시려고 했다.) 스승님의 깨끗한 처소는 ‘에이스 벤추라(동물 탐정-화)’가 되어 집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밤낮으로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스승님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스승님의 애완동물들은 일반적인 다른 애완동물과는 달랐다. 스승님은 마치 친자식처럼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셨으며 정겹게 동물들과 얘기를 나누시기도 했다. 스승님은 동물들이 언제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지 늘

감지하셨고 밖에서 돌아온 뒤에는 레몬즙을 탄 물로 즉시 닦아 주셨다. 또 애완견용 특수 치약, 애완견용 안약 등 갖가지 ‘개 전용품’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손수 스승님의 음식을 동물들에게 먹이곤 하셨는데, 그 음식을 ‘스승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건 합당치 않을 것이다. 개들이 스승님보다 먼저 음식을 먹었으니까 말이다! 스승님은 개들에게 먹이고 남은 음식을 드셨다.

정말 그 모습은 동물들이 의인화된 동화 같았다. 스승님이 동물에게 말씀하실 때면 동물들은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했다. 스승님은 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온 순간부터 동물들이 차츰차츰 바뀌어 아주 영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셨다. 동물들이 착한 짓을 하면 높은 음조로 말씀하시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해야할지 뜻을 전달하면 동물들이 즉각 이해했다.

스승님은 이웃의 동물들도 보살피셨다. 스승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웃의 개가 센터에 왔는데, 스승님은 개의 눈곱을 깨끗이 닦아주신 후 바로 돌려보내셨다. 평소 우리가 먹이를 주곤 해서 그 개가 계속 센터로 돌아오자 스승님은 “이웃 사람이 개를 잘 돌보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의 개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개집과 개 전용 약품, 안약, 채식 개뼈다귀 등 개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물건과 함께 개를 이웃집에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위해 이웃집을 방문하시기도 했다.

스승님은 돌리틀 박사(동물의 말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화 주인공)처럼 동물을 돌보셨다. 스승님의 처소에 오는 모든 동물들을 잘 보살피셨는데, 심지어 처소 앞마당을 엉망으로 만드는 못생긴 커다란 독수리도 불쌍히 여기시곤 매일 먹이를 주셨다.

또한 센터 주변의 이웃들과도 친교를 나누셨다. 하루는 이웃집의 뒤뜰에 불이 났는데 스승님은 장주들을 모두 불러 불이 난 장소로 바로 보내 물을 어떻게 뿌리는지, 방화선을 어떻게 파악할지 가르쳐 주셨다. 스승님의 지도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불의 일부분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 불이 순식간에 커지자 스승님은 모두를 현장에서 철수시키신 후 한 자리에 모아 모두 무사한지 확인하셨고, 다시 바람이 가라앉자 센터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다.

장주들이 집으로 돌아가 찬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에도 스승님은 불이 난 장소로 돌아가 소방관들에게 음료와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괜찮은지 상태를 확인하셨다. 그날 밤 이웃의 한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스승님은 처소 옆에 있던 당신의 트레일러를 바로 제공해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하셨다. 나중에 스승님은 우리가 불을 끄는데 많은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은 매일 일어난 갖가지 사건 중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는 스승님이 우리를 데리고 노변 식당에 저녁을 사주시려고 가셨다. 우리 일행이 식당에 들어갈 때 종업원은 불친절하게 맞았으며 게다가 스승님이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했다. 잠시 후 그녀는 스승님의 자리에 왔다가 스승님의 냅킨에 새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스승님은 그녀에게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불만스런 눈빛으로 스승님을 보았고 스승님의 쇼핑백에 개가 한 마리 든 것을 알아차리고는 한층 더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무슨 일이 있나요?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보군요” 하고 스승님이 말씀하시자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원래 쉬는 날인데도 주야 근무를 지시받았다고 토로했다. “아무도 이분을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오늘 일진도 아주 좋지 않고 주야근무를 해야 하니깐요.” 식당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스승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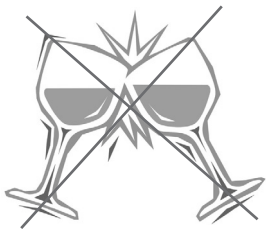
키스를 하셨다. 그녀는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국엔 크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은 “와, 웃으니까 아주 예쁘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계산대 뒤로 숨어 모자로 얼굴을 가려 버렸다. 사랑과 키스로 스승님이 그녀를 이기신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승님은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셨다. 플로리다에 오신 날부터 스승님은 제자들이 스승님을 쉽게 뵈 수 있고 선을 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 위해 고심하셨다. 스승님은 수주 동안 플로리다 각지를 차 타고 다니셨고 때로는 밤늦게 돌아오셨다. 허위 광고나 가격의 변동으로 스승님은 종종 실망하셨으며, 이 외에도 관련 허가증이나 법규 등에 관한 온갖 모순적인 정보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야만 하셨다. 스승님은 플로리다의 가뭄 문제 때문에 신이 당신을 이곳의 곳곳을 다니도록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스승님이 오신 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렸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지역 신문사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고, 몇 달 동안 뿌리까지 죽어 있던 우리 센터의 과일 나무들도 갑자기 푸른 잎들이 돋아났다.

이 기간 동안 스승님은 많은 압박감을 느끼셨다. 많은 제자들이 스승님을 뵈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특히 스승님 생신 날에는 더욱 심해 스승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 생신 날에도 스승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날 밤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바비큐를 준비했다. 스승님은 함께 참석하셔서 농담과 노래를 들려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셨다.

21일이면 어떤 습관도 고칠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질문: 중독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스승님: 마약 중독인가요, 아니면 알코올중독인가요? 그들이 원한다면 용기를 주어야 하지만, 반드시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도와야 합니다. 결국엔 본인에게 달린 것으로 여러분은 그 결에서 용기를 주고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정말 습관을 깨고 싶어한다면, 3주면 됩니다. 어떤 습관이든 3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일만 잘 참으면 되다고 말해주세요. 연이어 21일을 잘 넘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잘 참으면 다시는 습관과 싸울 필요가 없지요.

질문: 21일 동안 특별히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스승님: 어떤 중독물질이든 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라면 알코올이 든 음료를 끊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술친구들을 멀리해야 하며, 술집에 갈 생각은 당연히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지요! 술을 파는 곳 주변도 서성이지 말아야 해요. 쇼핑을 가도 주류 쪽을 지날 때는 눈을 딱 감고 지나쳐 사려는 물건 쪽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버터를 사려고 했다면 눈가리개를 하고 곧장 버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도처에서 술을 팔 테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 대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무해한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만 계속 보고, 껌 씹는 것을 좋아하면 항상 입에 뭔가 우물거리는 겁니다. 계속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술이 마시고 싶을 때는 그 대신 우유나 두유, 주스 같은 음료수를 마시면 되지요. 어떤 일정한 술만 마셨다면 그 술병에 우유를 대신 넣어서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흥미롭지만 무해한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지원해 주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환경과 직업을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생활 패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축구를 하고 싶어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이제는 하면 됩니다. 즉 21일 동안 뭔가를 하면서 지내면 그런 습관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지요.

친구는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에 한해서이며, 술친구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요가나 수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수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차원의 욕구를 고차원의 것으로 대체하면 스스로 고양되고 더 가치롭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또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술을 마실수록 점점 활동이 적어지게 되며 활동이 적어지면 더 지루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습관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고 자신을 위해 잘 생각해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즐겁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선 어떤 활동이 그들을 가장 기쁘게 했는지 종이에 쓰십시오.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힘과 행복을 얻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곳에서 지낼 때 가장 즐거웠는가, 이를테면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식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확실하게 그것을 만듭니다.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우며 흥미로울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의기와 목표가 충천해서 나쁜 습관을 잊게 됩니다. 다른 대체물도 없이 한 쪽에 가만히 앉아 욕구를 억누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밤에 귀가할 무렵에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다면 술이 코앞에 있어도 술병을 잡을 틈이 없을 겁니다. 술을 먹으려 해도 그 앞에서 끓어떨어질 것입니다.

단지 중독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떤 일로 기분이 저조한 경우, 혹은 실연이나 사업 실패 등 실망하거나 상심한 경우에는 바로 대체물을 찾으십시오. 가만히 앉아 이전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는지, 누가 즐겁게 해주었는지, 어느 곳이 가장 흥미롭고 좋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가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들,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들, 여러분을 지지하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또 평상시 늘 하던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 혹은 이미 해본 일 중 기분이 좋아졌던 일들을 해보십시오.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해보세요! 스스로 그런 흥미로운 일과 재미있는 사람들, 장소로 바빠지면 술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대개 지루하거나 근심이 있을 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우리가 근심걱정을 하거나 지루한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울적하고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친구나 흥미로운 활동도 없이 계속 울적해지면 술이나 담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든 시간을 잘 넘겨야 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길어봤자 21일이면 확

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21일이면 그 어떤 습관도 꺾 수 있지요.

여러분은 석가모니불이 왜 49일 동안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는지 압니까?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예수도 사막에서 49일 동안 있었는데, 왜 49일이었을까요? 7×7 , 7×3 식으로 나가기 때문이지요. 신은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엉망이긴 하지만 최소 7일이 걸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7일을 주기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철을 하는 겁니다. 더 오래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요. 누구든 21일 동안이나 49일 동안 더 머물 수 있다면 바로 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달 반쯤 지나면 센터 곳곳엔 부처들이 오고가겠지요. (대중 웃음) 왜 안 되겠습니까? 티벳에서는 **활불**(活佛-Tulkus)들이 온 마을을 뛰어 다닙니다. 즉 그곳 도처에는 살아 있는 부처들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여기에 좀 만들면 됩니다. (대중 박수)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스스로 일어나 기쁨을 주는 장소로 간다거나 사랑과 지원의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한번쯤은 해봐야 하지요. 일단 해보면 자신의 행동이 대견스러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힘들지만 시작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온갖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어 계속할 수 있게 되지요. 나쁜 습관은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며, 생각난다 해도 이런저런 일들과 여기저기 가서 농담과 모임, 파티, 놀이 등등을 하느라 하루가 재미있는 사람들과 일들로 바빠서 많이 생각할 틈도 없게 됩니다. 생각을 해도 할 일이 없을 때보다는 덜 하게 되겠지요. 따분한 일, 홀로 친구도 없이 재미없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적막하게 지낼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이 대체할 즐거운 일도 없이는 아무도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흥미를 끌고 기분이 좋게 해주는 사람과 즐거운 장소, 유쾌하고 심신에 이로운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

칭하이 무상사
1989. 6. 16. 브라질
(원문 영어)

질문: 우리 마음 속의 이기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스승님: 천천히, 그리고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힘과 닿아있다는 뜻입니다. 신의 힘만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울 수 있지요. 신의 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 인내심과 무아(無我)의 마음, 지혜와 사랑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랑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이런 식으로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 뿐입니다. 우리가 이 법문을 수행하고 신의 존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스승과 동수들, 신으로부터의 사랑을 느끼고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기심도 필요 없게 되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만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곧 그렇게 됩니다.

이기심은 사실 사랑의 한 형태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나중에 남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르거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기심은 나중에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킬 때 유용하게 쓰일 일종의 공부인 것입니다.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오디오 테이프

<영어+중국어 자막>

688 사랑은 인생의 진정한 본질

2000. 4. 30.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강연

<중국어+일본어 통역>

CG71-2 사랑에 대한 이야기 (상, 하)

2000. 7. 15. 일본 단체 명상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87873935 / 팩스: (886) 2-87870873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서울 강남구 포이동 230 유덕빌딩 2층
전화: 02) 577-2158, 2202-8090 / 팩스: 02) 576-1465 / E-mail: chinghai@unitel.co.kr

어떻게 이런 논리가?

청하이 무상사 /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두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낚시 장비와 미끼, 비디오 카메라를 사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끝에 바닷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험해서 차가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장비도 많이 망가졌지요. 마침내 해변에 도착해서는 고기를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오늘 하루는 완전히 망했군. 이 놈 한 마리 잡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나?”

“물론이지. 이 1마리에 2천 달러나 썼잖아. 이거 정말 너무 하는군!”

“그래도 더 잡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야. 1마리에 2천 달러니까 돈이 더 들 뻔했잖아!”

신의 뜻?!

청하이 무상사 / 1999. 10.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매우 신앙심이 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했는데, 도넛에 대한 신념도 그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넛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아주 똥똥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넛을 끊고 다시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신께 맹세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식을 해서 날씬하고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아예 회사로 가는 길을 바꾸기로 하곤 매일 도넛 가게를 지나야만 했던 노선을 바꿔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넛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혹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두 달 가량을 도넛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그 가게에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옛날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 길을 달리다 도넛 가게를 발견한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느님, 맙소사! 안 되요, 안 돼!”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어쩌면 이진 신의 뜻인지도 몰라!’ (스승님과 대중 웃음) 아주 신실한 관음법문 수행자였나 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의 노력에 대해 신이 상을 주시려는 걸 거야. 오늘 내가 도넛을 먹기를 원하시는 가봐.’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게 정녕 당신의 뜻이라면 입구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있게 하소서. 그럼 당신의 뜻을 알겠나이다.” 물론 그는 입구 바로 앞에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가게 주위를 수십 바퀴나 계속 돈 끝에 말이예요.

여러분과 너무나 똑같군요. 모든 게 다 스승님의安排잖아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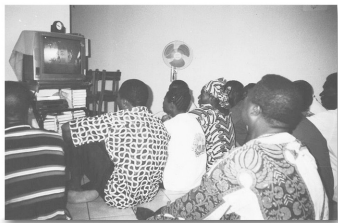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농담을 원문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스승님의 농담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5/jk1.htm>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eng/news/125/jk1.htm> (미국)

스승님의 보호로 재난을 피하다

관음사자



방편법을 배우기 전, 지역 동수들과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에 흠뻑 빠져 있다.

[베닌] 서아프리카 베닌 동수들은 작년 12월, 수도인 코토노우에 명상 센터와 경서실을 마련했다. 또한 이 나라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그와 더불어 라디오를 통해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방송하여 동포들에게 관음법문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코토노우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반인과 동수들에게 개방되어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스승님의 책과 뉴스잡지를 읽을 수 있으며, 날마다 방문자와 예비입문자들이 센터를 찾아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묻거나 배우고 있다. 동수들은 정기 단체명상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시간을 쪼개어 센터를 방문해 명상으로 기운을 충전하곤 한다.

센터에는 놀라운 영성의 자장이 퍼져 있어 사람들은 곧잘 시간 가는 줄 잊곤 한다. 사업가인 한 예비입문자는 방편법을 처음 배웠을 때 물질적인 질문들을 하곤 했는데, 그의 경제적 문제가 그의 수행 진보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방편법을 몇 달 수행한 후 그의 가슴 깊이 스승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 번은 센터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난 후 그의 모든 세속적인 문제들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일하러 돌아가야 했지만 평온하고 조용한 센터를 떠나고 싶지 않아 바깥 계단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나머지 다시 안에 들어가 스승님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떠나기로 작정하고 나서도 또 계단에 앉아 내면의 영적 기쁨과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만족을 가만히 즐겼다.

동수들은 수많은 내적, 외적 체험들로 자신감이 생겼는데, 베닌 센터가 생기기 전 방편법을 수행하던 한 입문자의 체험 역시 이를 증명한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토고 센터의 단체 명상에 참석하곤 했는데, 부인도 스승님을 따르고 싶어하자 토고 센터에 데려가 방편법을 배우게 했다. 그 날 저녁 단체명상이 끝났을 때는 이미 9시가 되어 부부는 역에서 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 마침 코토노우로 가는 미니 버스가 있어서 그들은 그 차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모두가 기다리는 가운데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마침내 인내심을 잃은 승객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렸지만 베닌으로 갈 다른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미니 버스로 돌아와야 했다. 이들 부부는 맨 나중에 승차했던 탓에 기사 옆의 앞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기사가 다짜고짜 그들의 승차를 거부했다. 이 부부가 이유를 묻고 사정을 해봐도 그저 막무가내였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다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두 아이 때문에 마음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한참 기다린 끝에 택시를 타게 되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들이 승차했던 미니 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들이 앉으려고 했던 앞 부분이 완전히 나간 것을 목격했다. 바로 그 순간 스승님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정해져 있던 이 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라운 소방수

[토고, 파리메] 파리메 센터는 서아프리카 토고에 두번째 세워진 센터다. 토고에서 가장 높은 산인 픽다고우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센터는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시냇물이 흐르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센터 바깥에는 크고 울창한 숲이 있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들이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파리메의 이 집은 원래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탓에 잡초가 우거져 황량했다. 집 주변의 나무들은 불에 그을려 있었고 도로포장도 안 돼 있었다. 이를 본 지역 동수들은 인위적인 ‘신통’을 발휘해 이 황량한 건축물을 아름답게 바꾸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싱싱하고 생기 넘치는 식물을 심어 센터를 푸르고 아름답게 꾸몄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행의 낙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스승님의 축복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센터에 거주하는 두 사형들은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낙엽과 마른 풀을 모아 바깥 땅에서 태우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사형들은 평소처럼 아침 청소를 끝내고 모아둔 쓰레기를 태운 후 센터에 돌아가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었다. 우기가 지난 뒤라 날씨가 매우 뜨겁고 건조했다. 약 15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평하며 불길의 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온 사형들은 불길이 거의 이웃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져 주변 농장 사무실과 나무로 된 전봇대에 근접하고 있었다.

놀란 사형들은 서둘러 물을 날라와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사그러들 줄 몰랐다.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은 계속 상황에 대해서 묻기만 했다. 주변이 온통 풀과 나무 뿐이라 발만 동동거리던 중 걱정과 죄책감을 느낀 한 사형은 명상홀로 뛰어들어가 스승님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렸다. (남자는 대개 잘 울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형은 관음사자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잠시 후 상황을 파악하러 밖에 나온 그 사형은 불길이 다 사그러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길은 이웃집과 농장 사무실, 나무 전봇대 바로 3미터 앞에서 멈췄던 것이다. 수많은 파인애플과 망고, 바나나 나무들과 넓은 초원들이 불에 탔다. 그 때 초원에는 양 한 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불길은 그 양과 주변 풀들은 건드리지 않고 원을 그리듯 지나쳤다. 두 사형은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켰을 이 재난을 경감시켜 주신 스승님께 신실하게 감사드렸다.

지금 파리메 센터는 매우 정갈하고 아름답다. 지역 동수들과 예비입문자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단체명상에 참가한다. 새로운 구도자들 역시 센터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센터 주변에는 화려한 꽃과 나무 뿐 아니라 다양한 과실수도 심어져 있으며, 망고철인 현재 맛있는 과일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센터에 심은 이 과일들처럼 우리가 심은 영성의 씨앗이 스승님의 사랑으로 자라나 멀지않아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



파리메 센터의 앞모습



파리메 센터 뒤쪽. 사진에 보이는 망고 나무는 원래 불에 그을리고 가지가 꺾였지만 지금은 잎이 푸르고 무성하게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동수들이 쓸모 없는 흙과 시멘트를 걷어내고 파리메 센터로 가는 길을 고르다. 그 후 원래 땅을 뒤집어 옥수수를 심었다



하리! 하리! 방랑자 성인!

관음사자

그는 손을 합장한 채 어설픈 영어로 퐁박퐁박 한 마디씩 말했다.

“아마, 오늘밤, 신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최근 내가 시내에서 견본책자를 나눠 주고 있을 때 한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그때 나는 부스를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는 스승님의 잡지를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4시간 동안 줄곧 서 있었던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마비상태라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특히 두 명의 부랑자 여인들에게 시달리고 난 뒤에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이 나라에는 부랑자들이 많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나 역시 그런 분위기에 감염된 상태였다.) 그 사람도 그 부랑자들과 한패라고 생각한 나는 그의 손에서 잡지를 거칠게 잡아채 가방 속에 넣어버렸다. 의외로 그는 개의치 않는 기색으로 천천히 퐁박퐁박 말했다. “정말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말을 더듬는 것과는 달리 매우 민첩하게 짐 싸는 것을 도와 주었다.

나중에 그는 내가 주최한 비디오 세미나에 나타났다. 하지만 비디오 강연회 90분 동안 그의 머리는 줄곧 행사를 위해 내가 준비한 채식 음식 쪽으로 향해 있었고 방법론을 전수하는데도 여전히 접시를 든 채 음식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그 부랑자들과 한패였을 거야. 이런 ‘신성한 모임’에 와서조차 밥 먹는데만 정신을 두고 있더니!’ 라고 생각하며 다소 경시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방법론 명상이 끝난 참가자들은 호응이 좋았고 다음 행사장을 묻기도 했다. 그 역시 나를 따라오며 다음 장소를 물었지만 나는 그를 무시해 버렸다. 강연회가 끝난 후 사람들은 나를 숙소까지 배려해주었다. 가는 동안 내내 즐겁게 얘기를 나누느라 그가 사라진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 날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단체명상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

보니 현관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나머지 나는 고개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오늘, 오늘은 단체명상이 없어요!” 두려움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내 말에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왜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를 들어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큰일났네!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놓았으니 무슨 나쁜 짓이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하지?’ 나는 떨면서 스승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리곤 지난 번 그가 먹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지못해 물었다. “배고픈가요? 먹을 것 좀 드릴까요?” 그는 역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좋지요.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결국 원래 단체명상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그에게 주면서 생각했다. ‘2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 당신을 위한 게 되어 버렸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이건 모두 내가 그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그것을 벌충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 충격으로 두려움이 적어지자 나는 지혜안에 집중하면서 이 이상한 사람의 행동을 예의 주시했다.

식사하기 전 그는 식기를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내가 음식을 늦게 먹는 건 이가 7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5분이면 될 것을 나는 30분이나 걸리지요.” 그는 마치 교수 같은 어조로 씹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까지 했다.

내 마음이 들키자 얼굴이 붉어진 나는 당혹스런 마음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비디오 테이프를 틀러 갔다. 러시아어로 된 테이프는 한 개 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미 세미나에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자 그가 “다른 테이프는 없나요?” 하고 물었다. ‘어제 당신은 먹느라고 개도 한번 들지 않고 보지도 않았잖아요! 다시 보면 또 어때서?’ 하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강연 테이프를 골랐다. 몇분 후 그는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한다면서 다른 것을 틀어줄 수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보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손이 마비되어 다른 테이프를 찾고 있는데 그가 또 한 마디 했다. “혹시 스승님의 생활 비디오 테이프는 없나요?” 그의 말은 요청이라기보다는 그 테이프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들렸고,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아프리카로 여행〉’이란 테이프를 모스크바에서 금방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비디오에서 스승님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시장에서 쇼핑을 하셨는데, 강연장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 스승님이시군요! 어린아이처럼 천진하시네요.” 그는 대단히 경탄하며 의자에서 내려와 인도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앞에서 앉는 공손한 자세로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큰 소파에 앉아 있던 내게 말했다. “이게 더 낫네요. 저는 단순한 삶을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나는 재빨리 카페트를 편 후 방석을 주었다. 그건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면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거였는데 제 용도를 다하게 되었다.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 그는 사진촬영 및 편집이 잘됐다고 말하면서 한때 자신 역시 촬영기사였다고 했다. 그가 집중하여 비디오를 보고 있는 동안 그의 때가 낀 얼굴에는 성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나는 결눈질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아직 식사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디오를 보고 싶어했다. 그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소중하게 포크로 모으곤 했는데 굉장히 교양있는 모습이였다. 나는 좀 전에 그에게 음식을 줄 때 함부로 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등을 돌려 몰래 눈물을 흘렸다.

테이프가 다 돌아갔지만 그는 아직도 식사 중이었다. 나는 다시 참을성 없이 말했다. “당신은 식사를 하세

요. 저는 먼저 명상해야겠습니다.” 내가 사도의 위엄을 유지하려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울고 싶어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의 말에 나는 거의 소리내어 울 뻔했다.

마침내 식사를 끝낸 그는 내게 겸손하게 청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명상하는 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어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방편법을 구두로 전수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교과서를 읽는 초등학교 학생을 지켜보는 박사처럼 보였고,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말을 마쳤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는 신이 강림하길 기다리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바다에 겹혀하게 앉았다. 명상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말해주었다. 그는 하리 크리스나의 제자로 25년 간 채식은 해왔다. 그의 나라가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종교박해를 받아야 했고, 나중에는 또 다시 폭력단의 일원으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가족과 헤어져 지금과 같이 타인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바가바드 기타(인도의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인도의 신성한 경전)를 배포하면서 하루 끼니를 벌어야 했다. 천국같은 도장에서 살아온 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무심결에 말을 꺼냈다. “명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당혹해하자 그는 주제를 바꿔 이야기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스승님에 대해 느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일찍이 유명한 다른 스승들의 강연을 들어 봤지만 그들의 강연은 내게 감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준 견본책자를 보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전부 읽고 나자 매우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고 스승님의 가르침은 제 마음과 꼭 맞았습니다. 나는 스승님이 보통 분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작은 복을 꺼내 능숙한 솜씨로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하리! 하리! 크리스나!” 스승님이 예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따라 불렀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스승님의 보호를 받았던 아름

답고 단순했던 그 시절이 물밑 듯이 떠올랐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신을 찬양하는 데 완전히 몰두해서 경건한 자세로 몇 곡을 연달아 불렀다. 나는 이 현신적인 제자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조용히 신께 기도드렸다.

내가 그에게 왜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겁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정신인가! 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는 여행이 힘들거나 장애를 만나면 투덜대곤 했으므로 그의 말은 정말 나를 깊이 일깨워 주었다. 그는 파르턴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스승과 내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많은 내적 체험을 하고 있는 데다 육신 스승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가. 스승님은 당신이 히말라야에서 도를 구하시며 겪었던 역경을 항상 기억하시고 관음사자들의 생활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맞을 동수나 친구들을 항상 안내해 주신다. 과거 역사상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해외 유학을 즐기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과 같다.

나는 원래 그를 동정해서 돈을 약간 주려고 했었지만, 다음 순간 ‘가난한 게 뭐 그리 나쁜가? 이진 그가 선택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온화한 자장과 신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이 주신 귀중한 보물이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부유하면서도 항상 작은 병이나 고통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에 비해 순수한 이 ‘방랑자 성인’은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셈이다. 또한 그의 삶을 향한 엄숙한 태도는 정말 경외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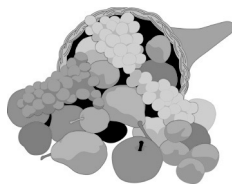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몇 권의 바가바드 기타가 든 자신의 배낭을 챙기고는 마치 십자가처럼 그것을 등에 지고 문을 나섰다. 나가던 중 그가 갑자기 뒤를 돌아섰다. 그는 손을 합장한 채 어설픈 영어로 토박토박 한 마디씩 말했다. “아마, 오늘밤, 신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나는 다시금 놀랐지만 감정을 숨긴 채 일부러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아닙니다! 매 순간이 선물이지요.” 그는 웃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다시 신비한 광채로 빛이 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손을 합장하며 인사를 했다. “모두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을 더듬었다.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느라 한참이 지나 그가 계단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 나는 가까스로 말을 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다가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꼭 쥐고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 속에서 스승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그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중생제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계 채식 식당 

SM 채식 뷔페

서울 강남구 포이동 삼호물산 맞은편

전화: 02) 576-9637

J&J 채식뷔페

화정동 덕양구청 뒤 고양프라자 7층

031) 9636-777, 778

SM 채식 한상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정구청 맞은편

051) 581-9993

전세계 채식 식당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알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자신의 게으름을 극복하라

칭하이 무상사 /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우리는 노숙자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해줘야 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돌려 뭔가를 주곤 하지요. 그래서 때로 내 운전기사는 “너무 번거로워요! 불편해요” 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나는 “그래요, 우리에게 다소 불편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불편함과 비교해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어서 차를 돌려주세요!” 물론 때로는 고속도로에선 그러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불편함에 비하면 우리의 불편함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을 위한 2분 정도의 시간은 있으며,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소한 불편함은 언제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핑계 거리를 이겨냈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해낸다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신기한 감응 

천국같은 평화

에이미 사저 / 호주 노던 리버 바이런 (원문 영어)

최근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간 여행 중 한 사건을 통해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과 보호를 명확히 체험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교회의 한 들판에 야영을 하던 중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시내에 갔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할 무렵 폭풍이 내 텐트를 금방이라도 날려보낼 듯한 기세로 불어닥쳤다. (내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심란한 마음으로 동료의 텐트와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일어날 온갖 상황에 대한 상상으로 두려움에 떨며 가슴을 두근거렸다.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어 결국 명상을 하며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텐트 지역의 폭풍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텐트 지역 밖에는 폭풍이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 장소는 폭풍의 눈이 된 것이다. 나는 이 폭풍의 눈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의 스승님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스승님은 이 거센 세상 속에서 천국같은 평화이시다.

스승님,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구원의 기쁨

정 완희 사형 / 한국 서울 (원문 한국어)



입문하기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신실한 참선 수행자였지만, 신기하게도 꼭 입문한 지 몇 년이나 된 것처럼 느껴진다. 관음법문에 입문할 때 나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었고 또한 이전에 스승님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예전에 매우 이상한 꿈을 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스승님과 나의 만남을 예언한 것이었다. 꿈에서 사방이 뱀으로 가득 찼는데, 나는 뱀을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내게는 악몽이었다. 나는 이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칼을 휘둘렀고 뱀들은 피를 흘렸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모두 사라지더니 세상이 밝고 맑아졌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온 세상을 인도하실 스승님을 보러간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다. 그들에게 그 스승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을 뵈러간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그 스승을 몹시 뵈고 싶었으며, 결국에는 그 스승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매우 초라한 토방이었다.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승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스승을 본 순간 나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맨 처음 느낀 것은 스승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승님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웃음을 지으셨다. 내 48년 평생 동안 그렇게 빛나는 웃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은 믿을 수 없으리 만치 아름다웠고 전신에서 밝고 맑은 후광이 빛나고 있었다.

스승님의 손을 잡으려고 한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하루종일 그 꿈을 생각하면서 지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스승님이 이 사바세계의 범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스승님을 다시 뵈길 갈망했다. 그분이 범부가 아니라면 분명히 불보살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진실로 스승님을 만나고 싶었고 방편법을 한 지 2, 3주 후 마침내 서울센터에서 만날 수 있었다. 방편법 단체명상 전에 본 비디오 테이프에 나타난 칭하이 무상사가 바로 내가 꿈에서 본 그 스승이란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 비디오의 스승님 모습이 꿈에서 본 스승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자, 옷, 웃음 등 모든 것이 똑같았다.

나는 스승님을 다시 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꿈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스승님이 나를 관음법문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내 영혼의 어머니이신 것이다. 명상을 시작한 이후 내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나 커서 종종 명상의 위대한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입문한 후 이마의 주름살이 없어지기도 했다. 가족들은 이런 기적에 매우 놀라워했으며, 나 역시 그들이 이에 대해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는 원래 많은 기계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기술자인데, 입문한 후에는 여성 디자이너처럼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기계 디자인은 매우 까다로워서 구조를 생각하는 데만 보통 이틀에서 나흘이 걸리는데 이제는 쉬운 일이 되었고 많은 종류의 책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서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세 가지 패턴을 적용했는데, 많은 불필요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더 낮은 비용과 최소한의 수정 작업을 거쳐 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지혜 안에 집중할 때면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처럼 강한 느낌을 받곤 하며 때로는 눈을 뜬 상태에서 빛을 보기도 한다. 또 직관력이 더욱 예리해지고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내면의 비전을 체험한다.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며 내게 이런 행운을 주신 신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씨니 사형/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서 일상생활과 대인 관계에서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도 모르는 새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점점 더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었으며 몸과 마음도 더욱 자유로워졌다.

어느 날 나는 차이나타운에서 과일을 샀다. 과일은 제각기 크기가 다양하고 익은 정도도 조금씩 다른 것들이었다. 평상시 과일이 생기면 내 뒤편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다음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곤 했다. 매번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제일 좋은 과일을 내 뒤편으로 남겨두던 습관을 바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가장 탐스러운 과일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약간 화가 났다.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만 골라서 집어가잖아!’ 아마도 이렇게 속상한 일을 경험했던 것은 이제껏 내가 행한 ‘조건부 나눔’에 대한 응보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나의 몰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화가 나자, 나는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달러 어치도 안 되는 이 과일들에 이처럼 강하게 얽매다니!’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명상을 통해 얻어낸 답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물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세세생생 축적되면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습관 때문이었다. 나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곤, 그 다음 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고 붉은 복숭아를 포함한 두 종류의 복숭아를 사서 함께 두었다. 그날 나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가져가도 나는 행복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남은 과일은 내가 진작에 ‘포기했던’ 바로 그 복숭아였다! 그것은 마치 스승님이 내게 주시는 상처럼 느껴졌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버려야만 흔쾌히 줄 수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버릴 때 얻게 된다. 이것은 에고를 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함’을 모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할 수 없음’을 걱정할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걱정해야 한다. 수행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성인(聖人)에 가까워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체험들 속에 있는 소중한 진리들을 종종 지나치는데, “행주좌와(行走坐臥), 모든 것이 선(禪)이다”라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다.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2000. 1. 1. 태국 방콕 국제선육 (원문 중국어)

여러분이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었다면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그것을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한 다음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사회 봉사활동의 신념과 효율성

글: 타오 후이링 / 대만 내무부 발행 계간지 '사회발전' 93호, 2001년 3월 30일

A. 서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십수 년 동안 인도주의적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전 세계 각지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으며, 각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구호 활동에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협회의 높은 동원 효율성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SMCHIA의 자원봉사활동 이면에 자리한 신념과 자원 조직 방식과 특색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다른 자원봉사활동 단체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다.

B. SMCHIA의 사회봉사활동에 담긴 신념

SMCHIA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인 칭하이 무상사(주1)의 제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설립한 단체이다. 다년 간, SMCHIA는 지구 곳곳에서 재난 피해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단체의 효율적인 사회자원봉사활동 개발은 이들의 신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만물동일체'의 깨달음과 신념

SMCHIA의 구성원들은 모두 관음법문(주2) 수행자들로 이루어져있다. 명상을 통해 그들은 모든 존재가 이 우주의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깨닫는다. 만물 동일체에 대한 깨달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수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마치 몸의 일부가 아프면 즉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그 '동일체'의 한 부분이 고통받으면 수행자들은 즉시 돕는다. SMCHIA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은 가르친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 우리는 의식주를 비롯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오며, 신은 우리의 감사를 받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도 많은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때로 이 도구들은 고장이 나거나 다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겐 그들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내겐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해선 안 됩니다. 우리에게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실상 빚을 갚는 것이며, 의무를 다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을 미루려는 변명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신은 우리를 돕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면 이 세상의 제도는 매

우 순조롭게 돌아가서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욕망이 많은 것입니다.”(주3)

2. ‘효과적인 봉사’의 이념

명상은 SMCHIA 수행자들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이해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시시킨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더 훌륭한 봉사를 하고 일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설령 좋은 의도로 남에게 봉사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진정한 무아의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주4)

이러한 신념은 ‘영적 수행’은 속세를 벗어나 집이나 사원 같은 격리된 곳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을 없앤다. 오히려 수행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

3. 함이 없이 하는 ‘보시’

SMCHIA 회원들이 사회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세는 ‘자연스럽게 하라’, ‘함이 없이 하라’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보시를 할 때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리고 ‘나’에게 이로울 것인지 생각지 말고 해야 합니다. 내면에서 샘솟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지요. 만약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을 바란다면 이러한 보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상기시킨다.(주5)

이것을 한층 더 자세히 설명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과 옷 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자라서는 산소를 마시고 사회로부터도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베푸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서로 교환하는 자연스런 순환일 뿐입니다. 신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신에게 되돌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주6) “이 우주의 만물은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주7)라고 말한다.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또한 엄중히 경고하기도 한다. “비록 보시가 공덕을 가져오지만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공덕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오히려 빛을 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보시를 할 때는 생각이 순수해야 합니다.”

4. 도움 받는 사람을 존중하라.

SMCHIA는 ‘도움 받는 사람들의 기분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회원들은 수혜자들이 열등의식이나 구제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오히려 봉사자들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수혜자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수혜자) 중에는 성인들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수행이 매우 높은 경지에 있지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희생하고 세상을 돕기 위해 난민으로 내려온 것입니다.”(주8) 수행자들의 이러한 깊은 영적 성찰은 ‘수혜자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의 원동력이 된다.

C. SMCHIA 회원들의 자원 봉사활동의 특징

1. 높은 기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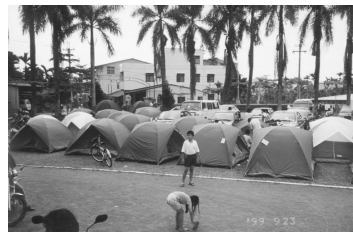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평화롭고 아무런 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재난이 일어날 때는 최선을 다해 구호활동에 힘쓰라고 이른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구호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은 신속하게 마음을 모아 급박한 시점에 큰 재해를 입은 지역 깊숙이 들어가 긴급 구호활동을 펼친다.

한 예로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SMCHIA는 즉시 대규모 구호활동을 펼쳤고, 그로 인해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산으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마을에 진입해 구조활동을 했다. 열악한 수송조건과 큰 위험 부담 때문에 필리핀 구조팀조차 접근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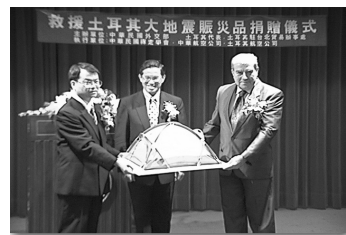
이와 비슷한 예로 1999년 터키 지진 때는 참사 소식을 듣고 포모사 SMCHIA는 이틀만에 구호물자를 구입하고 포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졌다. 그들은 824개의 대형 상장에 텐트와 침낭, 깔개, 따뜻한 담요 등 총 중량 1만 4천 킬로그램의 구호물자를 담고 대만 외무부 국제 조직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차이나 항공과 터키 항공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했다.(주10) 또한 싱가포르, 홍콩, 호주, 미국 등 SMCHIA 소속의 다른 센터들도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1999년 포모사 지진 때는 칭하이 무상사가 국외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 염려를 전하고 제자들에게 즉시 구호활동을 지시했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이 구호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음을 깨달은 회원들은 내무부 중앙은행의 지진 재난구호계좌에 SMCHIA의 명의로 즉시 성금을 전하고 난토우와 타이 Chung에 임시구호센터를 만들자 곧 포모사 전역에서 모인 협회원들이 합류했다. 모두들 힘을 모아 이동식 화장실, 텐트, 침낭, 식수, 식량, 일용품들을 긴급히 준비하여 재난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지진이 일어난 당일 저녁에는 이미 수많은 텐트를 재난 지역에 전달하여 피해자들의 숙소문제를 해결했다.

난토우 지역의 회원들은 난토우 시정부에 제일 처음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최초의 현장 구호팀을 만들었으며, 다른 협회 회원들도 구호팀을 조직해 각지에서 구호활동을 도왔다. 그들은 특히 길이 파괴되거나 산로가 막힌 탓에 정부와 다른 민간 단체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깊은 산간 벽지 사람들을 고려하여 구호물자들을 지고 걸어 들어가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시기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의료직에



9. 21. 포모사 SMCHIA가 제공한 텐트로 지진 이재민들이 숙소를 마련하다



포모사 SMCHIA가 많은 구호 물자를 터키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증하다. 외교부 상무부 차관 오 홍리엔 씨(가운데)에 의해 진행된 기증식에서 타이베이 주재 터키 무역국 대표인 터만 수렌코크 씨(오른쪽)가 구호품을 수령했다

종사하는 많은 회원들 또한 재해지역 깊이 도움을 주었다. 구조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 포모사 전역에서 공출한 50대의 소형트럭들이 각지의 협회원들이 보내온 구호물자들을 끊임없이 재해지역으로 실어 날랐다. 이 외에도 굴착기 팀은 정부를 도와 산업도로를 개통하고 도로와 부서진 건축물의 잔해를 청소했으며 경찰서의 임시 사무실 터를 닦고 마을간의 연결도로를 뚫는 일을 도왔다.(주11)

이상의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SMCHIA의 조직능력과 효율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힘은 협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돕듯 남을 돕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2. 다양한 봉사활동

SMCHIA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긴급 재난 구호

과거 십수 년 간 SMCHIA는 세계 각지의 재난 이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다. 필리핀 화산 폭발, 태국 북부 지역의 가뭄, 태국 남부 지역과 캄보디아, 어울락, 미국 중서부, 중국 등의 홍수, 캐나다의 눈보라, 일본 고베와 터키, 포모사의 지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협회는 많은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구호물자와 구호금, 의약품, 의료인 등을 보내 이재민들의 심신을 돌보는 구호활동을 완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자선 단체를 통해 구호활동을 지원한다.

(II)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

SMCHIA에서는 매달 어려운 가정에 지원금을 보내어 정기적인 불우이웃 돕기를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방문해 물질적, 정신적 위안을 주고 있다. 때로는 거리의 부랑자들을 찾아 추운 겨울을 나도록 침낭과 담요, 외투, 속옷, 음식 등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 준다.

(III) 재소자들에 대한 지원

칭하이 무상사는 항상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영특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능력과 지능을 발휘할 길을 찾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환경에 의해 ‘타락한 천사’가 된 그들의 능력이 수행과 사회를 돕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그들의 성취와 기여도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1989년 이란과 화렌 감옥의 재소자들을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각국의 SMCHIA에서는 종종 지역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포모사 협회는 평후, 킨먼, 녹도와 같은 전 지역에서 수백 차례에 달하는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그 중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세미나가 재소자 교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1991년 SMCHIA 회원들이 타이난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중범죄를 저지른 ‘리아오’라는 성을 가진 한 재소자는 칭하이 무상사의 인생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때부터 채식과 명상을 하면서 성격도 온화하고 선량하게 변했다. 그는 담배와 술을 끊고 금수품목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그는 교도소 당국에 철저히 따르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가진 연관기술을 발휘해 교도소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모범적인 태도로 인해 그는 13년 만에 석방되어 지금은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출옥 후 그는 수행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열성적으로 돕고 있다.

(IV) 무료 진료활동

포모사 SMCHIA는 벽지의 원주민 부락과 평동의 완루안향, 미아오리현의 미아오리시와 시후향, 녹도 등을 비롯하여 포모사 전지역에 걸쳐 많은 무료 진료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행정원 체육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천인 걷기 대회나 다른 행사에서 진료와 비상의료활동을 제공하기도 했다.

SMCHIA의 자원 의료봉사팀은 한의사와 양의학의 각 분야 전문의, 임상실험 전문인,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방면에서는 혈액 검사기와 소변 검사기, 심전계, 복부 초음파 검사기 등과 안과와 치과 전문의는 검안기와 휴대용 치과기구를 각각 준비해 사용하면서 의료상담과 위생교육, 질병 채취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V) 환경 보호와 정화활동

수년 전,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미화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 간 협회 회원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해 나무를 심고 산과 강, 고속도로와 공원, 해변·해저 쓰레기 청소 작업 등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그 공로로 환경부 표창장을 받았다. 또 시후향의 양 시우시아 향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28번 도로를 장기간 관리해왔습니다. 이 도로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지요. 더욱이 그들은 운반차량을 가지고 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우수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 최적의 장소에 처리합니다”라고 말했다.(주12)

(VI)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칭하이 무상사는 전 세계의 난민을 돕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녀는 홍콩과 필리핀 등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어울락 난민들을 방문하고 여러 나라 난민 수용소 난민들에게 많은 물자를 보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해왔다. 또한 르완다, 체첸, 수단, 코소보 등 전쟁 지역의 기아 난민들을 위해 적십자와 같은 단체를 통해 구호활동을 지원했다.

D. 포모사와 국제 사회에서의 인정

수년 간 SMCHIA의 회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의 본분으로 말없이 묵묵히 수행해왔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로는 많은 나라로부터 인정과 갈채를 받아 미국 정부는 칭하이 무상사에게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 상을 표창하고 미국 명예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와이

와 미국 중서부 6개 주(州)는 칭하이데이를 제정하고 하와이는 공원에 그 동상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태국 정부의 ‘승고한 삶의 별’ 상, 캄보디아의 ‘국가건설 표창장과 훈장’, 필리핀의 ‘국제 인도주의 상’, 그리고 마닐라 시의 명예시민의 열쇠를 수상했다.

포모사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들과 가석방자들에 대한 오랜 관심과 사회갱생 교육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검찰청으로부터 ‘명예 보호관찰관’에 임명되었고 1998년과 2000년에는 ‘법무부 장관상’을, 1999년에는 교도소 교화 및 보호활동 참여 공로단체로서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각종 표창장과 감사 편지, 신문 매체 보도 등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E. 결론

SMCHIA는 민간 수행단체로서 수년 간 국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세계 곳곳의 재난 이재민과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고양된 영혼은 사회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갖게 되며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열정을 갖게 되어 최고의 성심어린 마음으로 대중에게 공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위해 훨씬 효과적이고 세심하고 완벽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늘 “우리는 나무의 뿌리부터 물을 줘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 우선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사랑과 지혜의 힘을 발전시키고 정확한 개념을 세우고 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SMCHIA의 자선활동들은 진정 이런 사업의 모범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기사의 저자는 기독교 9.21 지역사회 재건 센터의 주임.)

주해

주1: ‘즉각 깨닫는 열쇠’ 전 권의 칭하이 무상사(이하 SMCH) 약력 참조.

주2: 관음법문은 SMCH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종교들의 정수이기도 하다. ‘관(觀)’은 관찰, ‘음(音)’은 내면의 소리를 뜻하며, 이 소리는 우리의 자성이자 진아이다.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며, 석가모니불 역시 ‘법 소리, 종소리’ (법화경 제 19장 법사공덕품), 그리고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법화경 제 25장 보문품)이라고 말씀하셨다. 힌두 경전에서 크리슈나는 자신이 ‘에테르의 소리’라고 했으며, 예언자 마호멧은 히라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이런 목소리(소리)를 들었다. 노자도 “도(道)란 대음화성(大音希聲)”이라고 말하면서 범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위대한 소리’ (도덕경 41장)라고 했다. 이 소리는 내면의 소리이며, 신의 말씀, 로고스, 사브드, 도, 음류, 나암(Naam), 천상의 음악으로 불린다. ‘내면의 소리를 관하는 것’ 외에도 ‘내면의 빛을 관하는 것’ 역시 관음법문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3: SMCH 뉴스잡지 21호

주4: SMCH 뉴스잡지 43호

주5: 중국어판 ‘즉각 깨닫는 열쇠’ 1권 p249 (한국어판 제3권 p127) 참조

주6: SMCH 비디오 ‘금재 비구 이야기’ 중에서 (1992. 5. 24. 시후)

주7: SMCH 비디오 ‘사실의 진상’ 중에서 (1991. 8. 5. 시후)

주8: SMCH 뉴스잡지 38호

주9: SMCH 뉴스잡지 14~16호 - ‘필리핀 재난 구조 작업일지’ 보고서

주10: SMCH 뉴스잡지 105호 - ‘터키 지진 피해자에 대한 원조’ 보고서

주11: SMCH 뉴스잡지 106호 - ‘9.21 피진 지진 피해자에 대한 사랑과 원조’ 보고서

주12: SMCH 뉴스잡지 117호 - SMCHIA가 시후향에 기부한 소방차 기증식에서의 시후 향장 연설문 요약

국립 대만대학교 교수, 칭하이 무상사를 높이 평가하다

루안 즈성 교수는 칭하이 무상사의 언행이 종종 격식과 틀을 깨고
일반 대중과 종교 연구가, 수행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선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까오슝, 아오 주순 기자 보도] 칭하이 무상사는 전 세계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녀의 독특한 설법은 광범위한 논평을 이끌어내 국내 최고 학술기관인 중앙연구원과 대만 대학교에서도 그녀에 관해 깊이 연구하고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만대 루안 즈성 교수는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이 일반 대중과 종교 연구가, 수행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선택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루안 교수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와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직접 보고 듣고 난 후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 모두가 '대안적' 범주에 속하며 매우 독특하게 느껴졌다고 말한다. 그의 견해로는 칭하이 무상사의 언행은 종종 격식과 틀을 깨고 일반인에게 익숙한 사회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동시대의 개념과 규범으로는 그녀를 이해하고 범주화시키기 매우 어려우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칭하이 무상사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

루안 교수의 조사를 보면 칭하이 무상사는 중국어와 영어, 어울락어, 독일어, 불어 등에 능통하며 전 세계 5대주 강연을 통해 그녀가 모든 종교경전에 정통할 뿐 아니라 평상적인 간단하고 쉬운 말로 심오한 교리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어떠한 인종이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입문을 시키며 구도자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초세간의 해탈법문을 전수하면서도 세상의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구호 및 자선활동을 전개한다.

루안 교수는 또한 칭하이 무상사가 전수하는 관음법문은 방법이 쉽고 새로워 보이지만 가장 오래된 훌륭한 명상법이며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철저한 5계 준수와 평생 채식, 매일 2시간 반의 명상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극단이 아닌 중도를 제창하며 제자들에게 진선미의 삶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 칭하이 무상사는 진리를 전하는 강연 외에도 시, 작곡, 연주, 시 낭송, 노래, 그레, 채식 요리, 채식 요리책 편찬, 의상과 보석 디자인도 하며 예술 작품 전시회와

전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패션쇼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녀의 영적인 행적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녀가 수행자라는 사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루안 교수는 연구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가 물질적 영적 방면 모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음을 지적한다. 칭하이 무상사는 절이나 교회를 짓지 않고 보지도 받지 않지만 세계 각지의 제자들은 스승이 자

신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주길 바란다. 하지만 어느 고정적인 장소에 매이기를 원치 않는 스승은 일정한 거처 없이 세상을 돌아다닌다. 또한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지만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을 종종 꾸짖기도 해 일찍이 ‘사람들을 꾸짖는 스승’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말법시대를 맞아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공포로 떨고 있을 때, 칭하이 무상사는 오히려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천명했다. 또 그녀 자신은 히말라야의 깊은 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재가에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문하고 난 후에는 산 속에서 고행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칭하이 무상사가 수백 수천의 제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국제선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입력을 가졌으며, 포모사를 일주하는 여행보다 훨씬 인상적인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이 참석한다. 그녀는 때로 각국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자선 사업이나 구호활동을 지휘하기도 하지만, 천성적으로 자유롭고 소박한 삶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머무는 국가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직접 디자인한 화려한 의상이나 방문하는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어 마치 수천의 얼굴을 가진 여인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종종 오해와 비난을 사기도 하는데, 그녀는 변함 없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칭하이 무상사는 자신이 전수하는 법문이 가장 오래된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녀 자신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우 현대적인 인상을 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제자들도 현대적인 수행자가 되길 희망한다.

루안 교수는 이런 파격적이고 초월적이며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들로 인해 사람들은 시각을 넓히기도 하지만, 반면 많은 이해를 받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속인들이 느끼는 지금의 혼란과 의혹은 이해가 가지만, 칭하이 무상사가 물질적 영적 방면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할 뿐 부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과 종교 연구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은 적어도 새로운 메시지와 선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두에 이익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루안 교수는 해가 되지 않는다면 혁신적인 것들은 무엇이든 환영하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완전히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그녀의 다양하고 독특한 공헌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부여하면서 사회의 문화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한다.

루안 교수는 칭하이 무상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중국 본토와 포모사의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해 신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국립대만 대학의 루안 진성 교수(맨 오른쪽)가 ‘종교와 전 세계의 중국인’ 세미나에서 칭하이 무상사에 관한 연구보고를 발표하며 칭하이 무상사를 높이 평가하다.

[아요 주순 기자]



폭우로 인해 상류의 흙과 바위가 휩쓸려
내려와 맑던 물이 흙탕물로 변했다

포모사를 강타한 태풍 도라지 재해 복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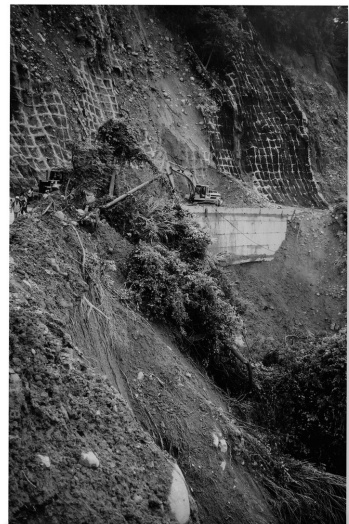
2001년 7월 30일 태풍 도라지가 화련의 중심부와 남부 지역, 동부 지역을 호되게 휩쓸고 지나갔다. 지난 1999년 9월 21일 지진 피해로 약해졌던 지반이 이번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다. 몇 시간만에 산기슭을 타고 내려온 급류로 주택과 아름다운 정경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일부 지역은 흙탕물 속에 침수되어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낳았다.



난토우 동수들이 군부대 구조팀의 도움을 받아 재해 지역에 비상물자를 조달하다.

난토우 센터의 동수들은 비바람이 약해지자 즉시 재해지역 깊숙이 진입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물품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쌀과 생수, 전지분유, 라면, 건조 식품, 기타 생필품을 구입한 후 8월 1일 새벽 2시경부터 구호품을 포장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무렵에는 ‘슈이리, 신이 임시 재난구조본부’에 구호물자들이 전달될 수 있었다.

한편, 화련센터의 동수들은 평민에 도착해 이재민들과 함께 주택 청소작업을 도왔다. 다른 동수 팀은 화련 먼루어 병원의 부상당한 이재민을 방문해 스승님과 동수들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구호금을 전달했다. 동수들은 큰 타격을 입은 따싱 마을도 방문해 식품과 생수를 나눠주는 한편, 현장에서 빈곤가구 수를 파악해 그들이 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구호금을 전달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갖춘 동수들로 조직된 구호팀은 ‘광푸 향공소 재난구호본부’의 요청으로 따싱 마을로 들어가 그곳의 이재민들에게 영적 위안과 지원을 전했다.



몇몇 재해지역에서는 산에서 쓰러진 나무로 교통이 두절되다



화렌 동수들의 구조활동,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의 심한 재해를 받은 따시 마을을 방문, 수해민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하다

미아오리 센터 동수들은 우선 미아오리 향의 실태를 파악한 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추오란과 타이안, 따후 세 마을에서 집중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역은 교통이 두절되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 관공소로부터 피해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 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이름으로 구호금을 전달했다. 생명이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은 일부 이재민들은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스승님의 알맞은 때 사랑과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포모사 북부 지역은 태풍 도라지로부터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지역 동수들은 태풍이 강타할 날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7월 30일 이른 아침 지룽시츠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 동수들로 조직된 대만 수륙양용 구조대는 즉시 최신형 수륙양용 기구와 함께 전문 훈련을 마친 16명의 구조대원을 시츠 소방서와 지룽 바이푸 지구에 급파했다. 하지만 태풍은 예상 경로와는 달리 화렌의 동부해안과 포모사 중부를 강타했다. 구조대원들은 지원을 위해 즉시 중부 지역



연합일보 기사가 수륙양용으로 구조활동에 참가한 동수와 인터뷰 보도하다

으로 달려갔으나 교통이 두절되어 철수한 후 타오웬에서 다음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중부 지아이에서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 제방이 잠겨 넓은 바다로 모습이 변했다. 홍수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접한 지아이 센터의 동수들은 즉각 구조팀을 조직해 가장 심한 재해를 입은 충푸 지역으로 향했다. 다행히 정부에서 그 지역에 이미 수백 명의 군인들을 파견해 이재민들의 재건활동을 돕고 있었지만, 동수들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물질적 혹은 영적인 지원이 필

요한 경우를 대비해 여러 곳의 관공소에 연락처를 남겼다.

비고: 구조활동은 아직 진행 중이며 지출내역과 영수증은 다음 잡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에 대한 뉴스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5/love.htm> (USA)

<http://Spiritual-Discovery.org/eng/news/125/love.htm> (USA)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완루안 향에서 무료진료활동

신즈 촌장과 주민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활동을 높이 칭송하다

[까오슝 아오 주순 기자 보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라이이 도장 소속 한의 및 양의 의료단은 어제 평둥현 완루안 향 신즈 마을을 방문해 무료진료활동을 펼치고 많은 동수들이 도장 주변을 청소하여 이웃 사랑을 나눴다. 왕 허칭 촌장과 지역민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활동과 센터의 지역 사회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라이이 센터 도장이 어제 실시한 이 의료봉사 활동은 지속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그 동안 협회는 많은 무료진료활동을 펼쳐와 그 수혜주민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의료팀은 한의사인 우 옌화, 장 옌린, 리 진칭, 양의사 황 치엔싱, 천 추이원, 물리 치료사 장 자오치엔, 약사 우 왕런, 천 시우린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즈 마을은 농장과 신즈, 라오팅, 밍파 4개의 부락에 총 445가구, 1천 6백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상업이 활발한 농장을 제외한 기타 부락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때문에 마을에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나고 중년과 노인들만 남아 있는 상태로 마을 사람들의 약 60퍼센트가 50대 이상, 평균 연령 52세로 전형적인 고령화 지역이다. 또한 대부분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의약품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파견한 의료팀은 지역민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의료팀은 농장 지역개발센터에 도착해 촌장인 와씨와 그의 아내인 우 리 위 씨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촌장이 이번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전 촌장인 리 하오이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지역센터로 몰려들었으며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료가 진행되었다.

포모사 민중일보
2001년 7월 30일 월요일
(원문 중국어)



왕 허칭 촌장과 국제협회 의료팀의 단체 사진



신즈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나눠주는 모습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들이 신즈 마을의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왕 씨는 도로청소와 환경미화, 지역민을 위한 의료팀의 수시 파견 등 공익활동에 앞장 서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해 큰 존경심을 표했다. 또 명절 때마다 협회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성금과 식량을 나눠 주었고, 매년 추석 때에는 지역민들에게 월병을 나눠 주며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라이이 도장에서 바자회를 열 때는

지역 주민들을 반드시 초청한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많은 주민들도 라이이 도장의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그들 가운데 몇몇은 라이이 도장의 자비로운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동수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표 1: 2001년 5월과 6월 포모사 각종 활동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NT)

장 소	날 짜	내 역	금 액	부 록
미아오리	2001. 5. 6.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시후향사무소에서 주관한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작업 동참 (자원봉사)	0	
타이난	2001. 5. 25.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와 레크레이션 활동 개최 (5월 3일부터 5월25일까지)	1,540	A
타이난	2001. 5. 27.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이 추진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에 따라 타이난 골든 코스트 청소작업 (자원봉사)	0	
지아이	2001. 6. 8.	지아이 교도소 방문, 재소자를 위한 영성 세미나와 명상법 전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0	
타이난	2001. 6. 18.	타이난 청소년 감호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와 단오절 선물 증정	1,200	B
까오슝	2001. 6. 20	까오슝 청소년 감호소 방문, 영성 세미나와 단오절 선물	3,900	C
신 주	2001. 6. 21.	관시 현 화광 지능개발 센터의 심신 장애자 방문, 발전 기금과 단오절 선물 기증	1 25,128	D
타이베이	2001. 6. 28.	타이베이 룡산 중학교 야간조명 유지비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0,000	E
합계: NT\$ 61,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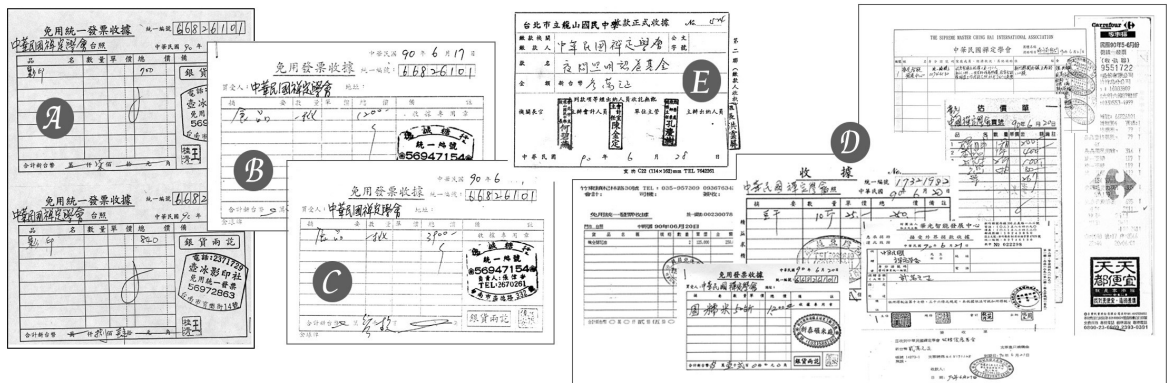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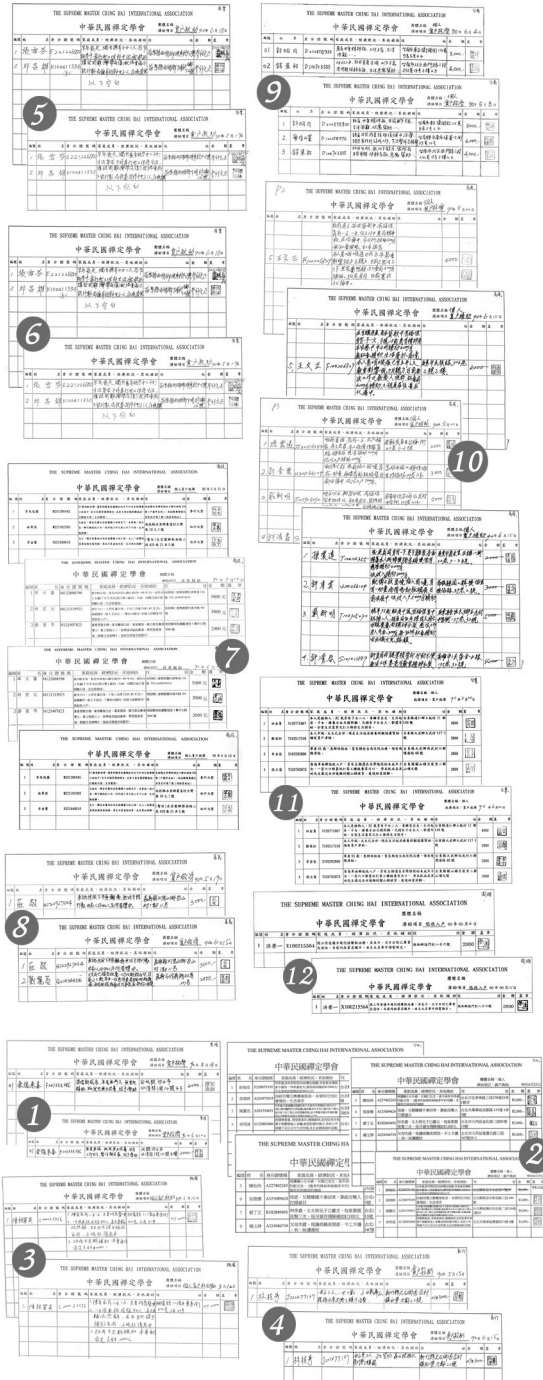


표2: 2001년 5월과 6월
포모사 극빈 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장 소	2001년 5월		2001년 6월		부 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8	23,000	7	21,000	2
타오옌	1	2,000	1	2,000	3
신추	1	3,000	1	3,000	4
미아오리	2	6,000	2	6,000	5
타이츄	8	26,000	8	26,000	6
난토후	6	23,000	6	23,000	7
지아이	1	3,000	2	5,000	8
타이난	3	11,000	2	7,000	9
까오핑	5	18,000	5	18,000	10
타이퉁	4	10,000	4	10,000	11
평후	1	2,000	1	2,000	12
소계	41	NT\$129,000	40	NT\$125,000	
합계: NT\$254,000					

표1, 표2에서 보이듯이 2001년 5월에서 6월까지
포모사 각종활동 지출금액은
총 315,768 NT달러(미화 약 9,568.73달러)에 이른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members.mweb.co.th/godsdirectcontact/> (태국-태국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 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l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c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베닌	센터	229-30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yahoo.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55-00-46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Mr. & Mrs. Suresh Patel	27-31-262-5111
		surindie@intekom.co.z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hjbcente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lukiis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maurice@email.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essence@intnet.mu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oz	591-337-2039
		adamun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87-4516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

★ 멕시코

과나후화토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	-------------------------------------	--------------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멕시코DF	센터	52-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852-1256
		teccenter@ragnatela.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bet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리마	센터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
		chinghailimaperu@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51-44-260871
		larv@terra.com.pe
트루히요	Mr. Luis Rebaza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Le Lam	1-613-260-1698
		lam.le-quanyin@home.com
	Mr. Armand Laplante	1-613-745-6050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home.com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aicompro.com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sheila@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aol.com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obj@arkansas.net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s. Tina Polny 1-714-960-4518/960-4568
qin-na.polny@mindspring.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James_Le@adaptec.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juno.com

플로리다 :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tls77@aol.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nt@ao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ilovesuma@hotmail.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캔터키 :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s. Jon L Fontenot 1-504-483-3234
jfontenot@hotmail.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94@hotmail.com

미시간 : Ms. Susan Manturuk 1-616-588-6341
manturuk@torchlake.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juno.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trobert@yoda.unl.edu

네바다 :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센터 1-973-209-1651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anawarskas@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von@swoca.net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wisdm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Mr. & Mrs. Alistar Phuoc Minh Pham 1-503-642-1252

AlistarPhuocPham1@jun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Diep.Ngu.PA@juno.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wul@austin.rr.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Mr. Weidong Duan 1-214-528-9178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roltex@interserv.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DNgyuen376@aol.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Compaq.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dotplanet.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

8468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davidkyoung@hotmail.com
benptran007@hotmai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아시아*****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hotmail.com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카오슝 Mr. Fei Lung Wu 886-8-7211692
Mr. Yuan Hua Wu 886-8-7562020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indiatimes.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begodnow@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62-21-6319066

자카르타 센터 smch-jkt@d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l@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Swastika 62-21-7364470
62-31-5673084

수라바야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eth.biglobe.ne.jp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2-2202-8090

서울

서울 센터

chinghai@unitel.co.kr

02-5772158

quanyim@unitel.co.kr

02-5755080

02-7953927

02-599-1701

051-5819200

quanin@konet.net

051-9574552

051-8057283

051-8946645

063-2747553

063-2545824

032-2441250

032-244-1250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053-6333346

053-7675338

053-8563849

042-6254801

042-2547309

062-5257607

062-9716559

jomd@hanmail.net

054-8213043

054-8734961

054-5325821

houmri@unitel.co.kr

064-996113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853-532995

송호준

황상원

이원석

전주 센터

신현창

인천 센터

이재문

대구 센터

김익현

한신희

차재현

대전 센터

김수동

광주 센터

조명대

안동 센터

김삼태

영동 센터

제주 센터

★ 마카오

센터

연락인 사무실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칼라룸푸르 센터 60-3-9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고

울란바토르 Mrs. Luvsan Tsengel 976-11-344604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977-61-28144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마닐라 센터 632-433-9248

manilach@hotmail.com

65-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jean@sol.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4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7126
66-74-368329-30(c/o 155)
하얏트 센터 66-43-261878
콘칸 센터 66-43-241718
Mr. Paisal Chuangcha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universal@planetinternet.be

★ 불가리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그리스

아테네 Mr.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luong@luukku.com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iobox.fi

★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24-31924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Mr. Lux Tamas 36-309-611994

지울 Ms. Dora Seres 36-1379-1924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ardleech@unison.ie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tnguyen@c2i.net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0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home.pl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lisbon_center@n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Lidia Kong 34-91-7756670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34-96-3336208
채식 식당 34-96-3744361
Mr. Yu Xi-Qi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hang.nguyen@spray.se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widlund@hem.utfors.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97345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웁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premila-perera@pharmacog.uu.se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gefliu@yahoo.com
Ms. Klein Ursula 41-22-3691550

★ 영국

스토크온트렌트 Mr. Janet Weller 44-1782-414989
family@weller142.fsnet.co.uk
런던 센터 44-208-3742743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Robert.jackson@classicfm.net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브리즈번 센터 617-3374-3339

		briscentre@hotmail.com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Mr. Hong Bo	61-2-97887588
		ctieng@dme.qld.gov.au		hongbo_huang@hotmail.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태즈메이아	Mr. Peter John Boatfield	61-3-62293878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 뉴질랜드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오클랜드	Mr. Kym Anton Toia	649-419-4470
		rayandjulie@linknet.com.au		nzanton@yahoo.com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smcanbra@cyberone.com.au		takahide@xtra.co.nz	
멜버른	센터	613-9890-0320		Mrs. Chanwu Wong	649-266-6898
		Melbsmch@aol.com	크라이스트처치		
	Mrs. Rosemary Nagtegaal	613-9585-7871		Mr. Michael Lin	64-3-3436918
	Mr. Pham Van Bon	613-9470-4573		chaomim@hotmail.com	
	Mr. Alan Khor	61-3-9857-4239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퍼스	센터	61-8-9242-1189		glenprime@hotmail.com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타우란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4-7661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413-751-0848(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240-352-5643 /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vole@earthlink.net

팩스 :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 886-2-87910860

팩스 : 886-2-8791122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 (886) 2-87873935

팩스 :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 (82) 2-2202-8090

팩스 : (82) 2-2202-809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mri@unitel.co.kr

전화 : (82) 54-532-5821

팩스 : (82) 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상주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나의 소원은

진 사저 / 중국 본토 (원문 중국어)

난 정말 작은 씨앗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어디든 뿌릴 수 있도록

난 정말 한 줄기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리가 되도록

난 정말 산천, 강물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제게 주신 진선미를 펼칠 수 있도록

난 정말 무한한 허공이 되고 싶어요
당신의 크나큰 사랑에 녹아들 수 있도록

칭하이 스승님

어린 입문자 메이옌 토(9세) /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MASTER CHING HAI

M Magnificent, magical Master,
A Amazing Mother:
S sacrifices She makes.
T Tender love she has,
E extraordinary Power,
R Rays of Light She creates,

C Compassionate and caring She is,
H Humorous always,
I Interesting, inquisitive mind
N Never lets you down.
G Graciousness and goodness She has.

H Heavenly being
A Always with us
I In times of need and longing.

장엄하고 신통하신 스승님은
놀라우신 어머니
우리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온유한 사랑을 지니셨고
비범한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시지요

깊은 자비와 사랑을 가진 스승님은
언제나 유머스러우시고
재미있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
우아함과 선량함을 겸비하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지요

스승님은 고귀한 천상의 존재
우리가 갈망하고 원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신이 내려주신 낙원-뉴저지 센터

40에이커 규모의 뉴저지 센터는 뉴욕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뉴저지의 북서 산악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의 봄이 찾아오면 오색 찬란한 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가을에게는 단풍이 들어 산이 황금빛으로 물든다. 또 겨울에는 떨어지는 눈송이로 색다른 정경을 연출한다.

센터 주변의 야생동물들은 센터의 상서로운 분위기에 끌려 와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자주 발견되곤 한다. 꿈은 우리 센터를 가장 자주 찾는 방문객이며, 시슴과 갓 태어난 어린 시슴 역시 다른 야생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돌아다니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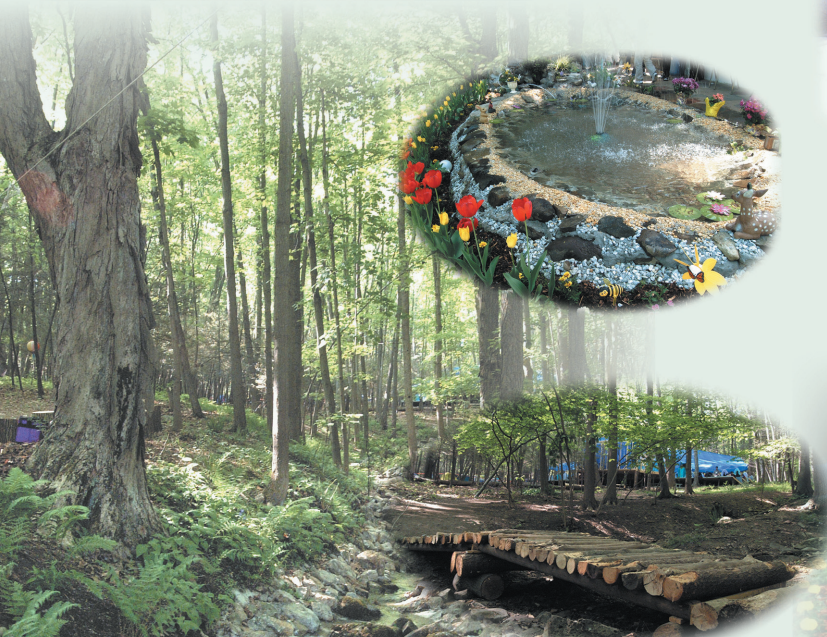
스승님은 1990년 이 땅을 뉴저지 센터로 사셨다. 그 후 스승님은 몇 차례 잠깐 머무시기도 했는데, 1992년에는 스승님의 지도로 단시간 내에 명상홀을 넓히고 숲속에 주차장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일이 거의 신의 속도로 이뤄졌을 때 우리는 스승님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워 활용 시키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1999년 다시 방문하셨을 때 스승님은 동수들이 이곳에서 완벽한 수행환경을 누릴 수 있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랑과 자비로운 관심을 보이신 스승님은 10여 명의 플로리다 센터 장주들을 보내 건설 계획을 돕게 하셨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숲속 명상홀을 짓고 나무 한 그루 베어내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 작은 시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한없이 넘쳐흐르는 사랑에 빚대어 ‘사랑의 강’이란 이름을 붙였으며, ‘지혜안’이란 샘의 이름 역시 내면에 집중할 것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수들은 매주 단체 명상이나 선에 참석할 때마다 센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곤 놀라워했다.

뉴저지 센터는 비디오와 책, 뉴스 잡지 등 동수들에게 영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디오 세미나와 같은 다른 센터의 행사와 매주 행하는 단체 명상과 중요한 선이 행사들을 지원한다. 뉴저지 센터는 미국 북동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스승님의 축복 속에 지역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를 계속 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 격언에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대계(十年之大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있다. 이제 센터의 나무들은 12년이 지나 크고 강하게 자라났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님의 축복으로 100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즉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법문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덕분이다. 진실로 신이 주신 낙원인 뉴저지 센터는 관음가족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사이 오솔길은
뉴저지 센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잃어버린 기억들(The Lost Memories)”

(영문판)

“잃어버린 기억들”은 1970년대 쓰여진 칭하이 무상사의 로맨틱한 39편의 시들을 모은 특별한 시집입니다. 이 시기는 스승님께 사랑과 이별, 기쁨과 상심, 갈망과 충족, 추구하고 발견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집에 나타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강렬한 정열에서부터 깊은 사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시마다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과 느낌, 경험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서정적인 문체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엽, 보금자리로 돌아갈 길을 잃고 헤매는 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등을 통해 아련히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극도로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적이고 매혹적인 문장에는 로맨틱한 사랑, 인간관계, 영적인 현신, 삶의 무상함 등 스승님의 내밀한 감정들이 매력적이고 강렬하게 녹아 있습니다.

오밀조밀 얹힌 폭넓은 감정들 밑에 은밀히 깔려 있는 일관된 하나의 주제는 <무소부재한 신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평생에 걸친 칭하이 스승의 구도적 관점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 우리에게 혁신적인 희망, 즉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의 소용돌이 등 인생의 부침(浮沈) 속에 휘말려 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희망을 선사해 줍니다.

“잃어버린 기억들”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오랫동안 여러분 곁을 지키며 인생이라는 여정에 대한 영적 통찰력과 평화, 사랑을 일깨워줄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새로 나온 시집을 생생한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ng/publication/books/memory/index.htm> (미국,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5/es.htm> (미국 영어)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영어/중국어 자막)

사랑은 인생의 진정한 본질

2000. 4. 30.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강연

(영어+중국어/어울락어 자막)

별이 빛나는 밤

-칭하이 무상사와 할리우드 유명인사들 (상, 하)

